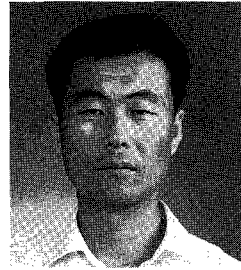


# 육용종계의 사료급이에 대한 요점

— 아바에이카 종계를 중심으로 —



이 상 배  
(주)삼화농원 부장



오늘날의 육용종계는 성장률, 가슴살, 사료요구를 개선을 위해서 선발의 여러세대를 거쳤다.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육계에 초점을 맞추어 선발이 되었지만 육성되는 육용종계와는 상반되는 항목들이다.

몇몇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이 종계는 특정한 일령에 특정한 체중을 얻도록만 사료를 급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예술이고 과학이다. 항상 모든 계통의 닭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쉽도록 연구가 되어왔다. 현대의 육용종계는 가장 흥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분야중의 하나이다.

실제 목적은 종계는 이상적인 영양섭취로 적당한 체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관의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최상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바에이카 종계 암탉은 초생추부터 점등자극을 할 때까지 약 23,000kcal의 에너지와 1,250 g의 단백질을 필요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또한 수탉은 약 31,000kcal의 에너지 및 1,700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는 매일 사료를 섭취하는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의 %를 곱하여 계산한다.

만약 수탉이 암탉과 같이 사육될 경우, 이 계산에서 계산된 양은 반드시 더 높아질 것이다. 폐사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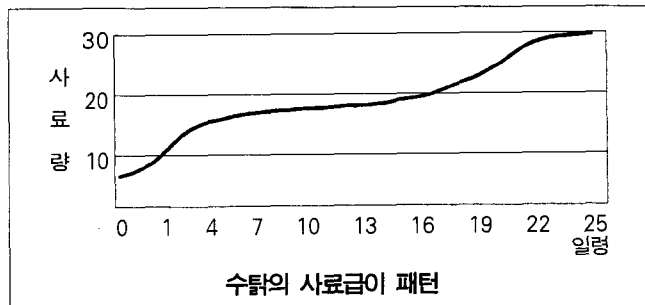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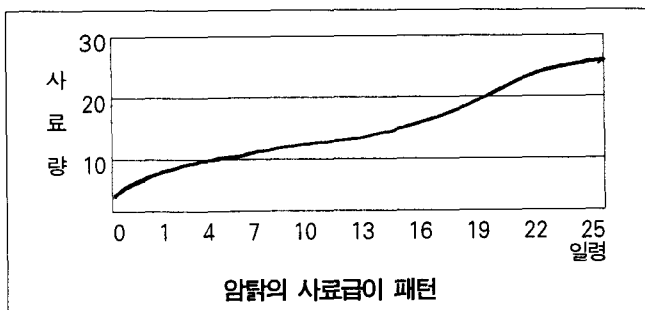
적정 사료패턴은 불룩한 모양을 갖는다. 사료급여량을 그래프 위에 점선으로 그렸을 때 사료증가량이 5~10주령 사이보다 15~20주령 사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큰 증가는 암, 수 모두 점등자극을 받을 때 성성숙 준비에 도움을 준다.

모든 닭들에게 적당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계군에게 사료를 급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이다.

격일급여법은 매일 급이시 사료급여량이 급이기에 가득차지 않고 사료섭취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다.

한 번 육성이 잘된 계군은 점등자극 이후에 너무 빨리 사료증량을 하는 것은 실제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

사료증량이 너무 많으면 암탉은 난포발달이 부적절하게 연달아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너무 많은 쌍란, 탈항, 폐사증가를 일으킨다.



그 계군은 지속적으로 사료증량을 필요로 하지만 성장과 성성숙은 이미 충분하다.

산란이 시작되었을 때까지 격일급여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여기에는 2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부분 계사가 적정급여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

추가적인 사료증량 없이 5/2급여법을 이용, 약추들에 적절한 사료급여를 하지 않아서 성성숙이 너무 지연된다.

두 번째는 매일급여로 닭들의 사료이용이 개선되어서 약 3주만에 체중이 너무 과비된다.

이러한 체중은 성성숙 이전에 이루어진다. 가끔씩 너무 갑자기 증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사료급여량을 유지(증가하지 않고)만 한다.

과거에는 에바에이카사에서는 암탉이 35~40% 산란일 때 피크사료를 주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산란율이 약 50%에 도달했을 때 피크사료를 급여하기를 권장한다.

좋은 한가지 방법은 산란 5%에서 50%까지 증가하는 날짜를 평가하여 급여하는 것이다. 산란 5%의 사료와 일반적인 피크사료의 양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 사료량을 일수로 나누어 매일 증가시켜 급여한다.

예를들어 산란 5% 사료부터 피크사료까지 약 16g을 증가시킬 때 일반적으로 약 17일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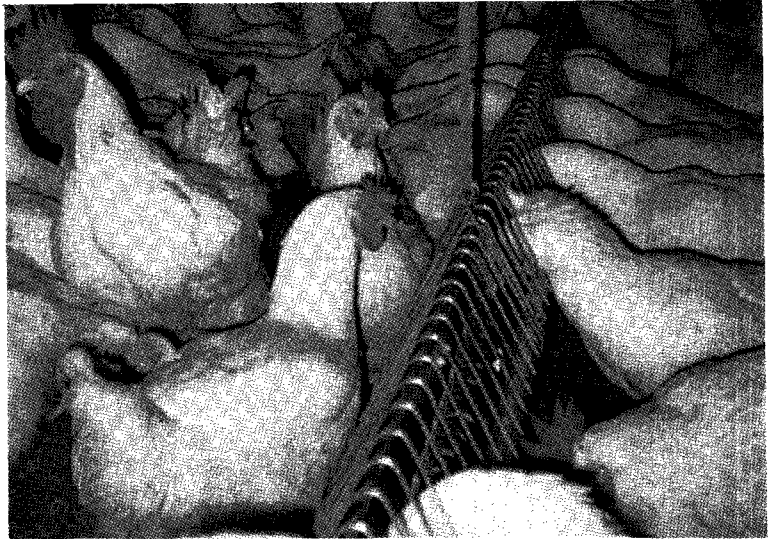
이것은 평균 일일 약 0.9g 정도씩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바에이카 대형종인 FSY의 경우에는 피크사료를 더 늦게 급여한다.

이 경우에는 산란이 최소한 65% 도달했을 때 피크사료를 급여한다. 크사료급여량은 추운 계절에는 460kcal/일, 더운 계절에는 440kcal/일을 권장한다. 그러나 실제 피크사료급여량은 지역, 계사, 사료형태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달라진다. 피크사료를 급여한 후 7일까지 사료섭취 시간으로 피크사료량이 적당한지를 추정한다. 만약 사료섭취 시간이 다음 7일까지 늘어나지 않는다면 즉시 13kcal를 증량시킨다.

일단 주간 평균산란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첫사료 감량을 실시한다.

어떤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첫사료 감량은 약 7kcal를 실시한다. 이 감량은 2단계 이내에서 다음주 동안에 실시하며 그 다음부터는 주간 약 3kcal씩 감량해 나간다.

사료감량 목표치는 40주령까지 피크사료량의



5%를 줄이고 60주령까지 5%를 줄인다.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섭취 시간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닭이 실제로 필요한 사료량을 알려주는 첫 번째이고 가장 좋은 표시이다. 만약 피크산란 근처에서 사료섭취 시간이 짧아진다면 사료를 증량해야 한다.

만약 사료섭취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사료를 감량하거나 또는 증량 정도를 늦추어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 사료의 질량차이, 음수부족, 질병, 기타 문제가 있는지를 결부하여 점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농장에서 관리를 대신하여 줄 수는 없다.

이 요점은 농장 관리자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종계가 최고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분이다.

단순히 질 좋은 종계를 공급하는 것만이 최고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관리 정보를 알리는 것도 필수이다.(자료제공 : 아바에이카사) **양계**